



쿠바혁명 50주년 특집

■ 화보로 보는 쿠바혁명 50년, 전과 후

1. 독립 투쟁: 호세 마르티와 독립군(맘비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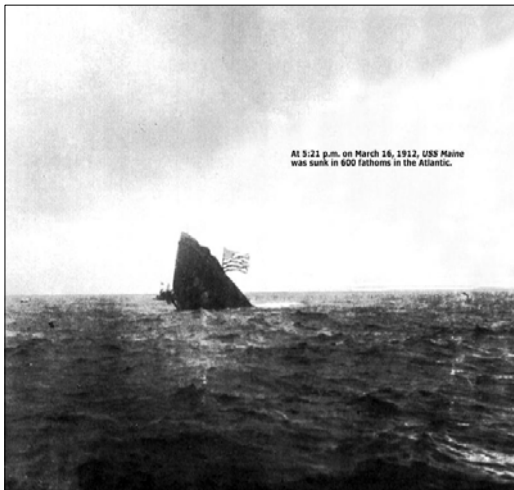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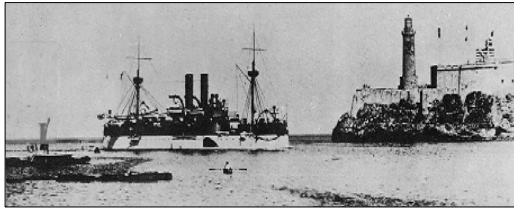
↑ 아바나 혁명광장의 호세 마르티 기념탑. 마르티는 1895년 4월 11일 쿠바 동쪽 마이시 곳에 상륙, 스페인군과 교전 중 5월 19일 전사했다.



↑ 스페인이 식민지배에 맞선 쿠바의 독립군. ‘맘비세스’ 또는 ‘해방군’이라고 부른다.

스페인 식민지배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쿠바인의 투쟁은 19세기 중엽부터 가열차게 전개되었다. 특히 호세 마르티가 전사한 1895년부터 독립군의 공세는 더욱 강화되어 1898년 무렵에 이르면 독립은 시간 문제였다.

2. 미서전쟁과 쿠바의 독립



† 아바나 항으로 입항하는 미국 순양함 메인(Maine) 호(위)와 1898년 2월 15일 원인 불명의 폭발로 침몰하는 메인 호(아래).

이 사건이 발발하자 당시 경쟁관계에 있던 언론사 허스트와 풀리처는 연일 선정적인 기사로 전쟁을 선동하는 여론몰이에 나섰다. 결국 여론에 밀린 미국 정부의 선전포고로 미서전쟁(Spanish-American War)이 시작되었다.



† 1898년 미서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스페인의 식민지 쿠바,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을 지배권을 획득했다. 이로써 쿠바는 독립을 하지만, 허울뿐인 독립이었다. 사진은 아바나의 미점령군 사령부. 성조기와 쿠바 국기가 나란히 내걸려 있다.

미서전쟁에서 미군과 함께 스페인군과 싸우던 쿠바 독립군은 미국의 야욕을 알아채고 곧바로 반미독립투쟁에 돌입했다. 이에 미국은 “언제든지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등 사실상의 주권을 박탈하는 조약, 플랫수정안(1903)을 강요한다. 요즘 포로 학대로 문제가 되고 있는 관타나모 항구의 미군사기지도 이 조약에 의거하여 미국이 임대한 것이다.

3. 바티스타 정권과 몬카다 병영 습격



↑ 독재자 폴헨시오 바티스타 장군(사진 왼쪽 서 있는 사람). 바티스타는 1933년 쿠데타로 마차도 정권을 무너뜨리고 쿠바의 실권을 장악, 1940~1944년까지 대통령을 역임했다. 1952년에도 쿠데타를 일으켜 철권으로 통치했다. 바티스타는 미국과 친미기업의 이해를 철저하게 대변했으며, 1958년 12월 31일 권좌에서 쫓겨날 때는 7백만 달러의 현금과 예술품을 밀반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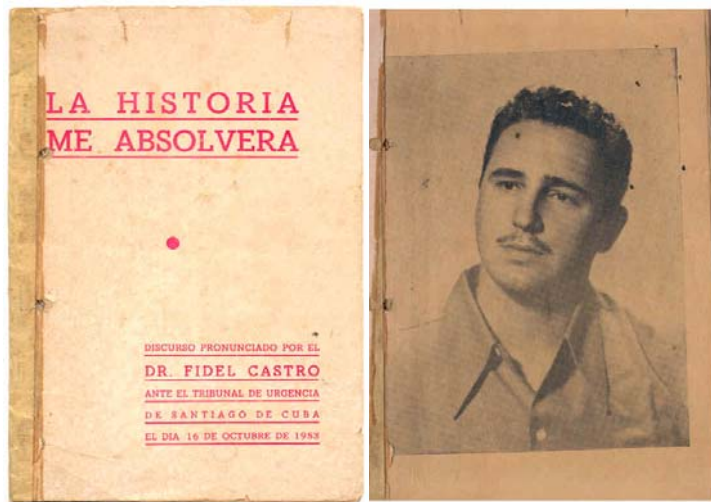


➤ 1957년 “우리 자식들을 암살하지 말라 - 쿠바 어머니들”이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는 어머니들. 바티스타 정권은 반정부활동 인사들을 길거리에서 무자비하게 암살했다.

➡ 1953년 7월 26일 피델 카스트로가 주도한 소수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은 산티아고(Santiago)의 몬카다 병영. 벽면 여기저기에 총탄의 흔적이 남아 있다. 몬카다 병영 습격은 쿠바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이었다.



➡ 1953년 10월 16일 피델 카스트로는 최후 변론에서 “역사가 나를 용서하리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다. 사진은 1954년 지하 출판된 카스트로의 최후 변론 『역사가 나를 사면하리라』의 겉표지와 속표지



➡ 1955년 5월 사면으로 풀려나는 카스트로와 동료들



몬카다 병영은 쿠바혁명의 성지이다. 1960년 혁명정부는 병영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7월 26일 학교도시’(Cuidad Escolar 26 de Julio)로 이름을 바꾸어, 박물관, 시민교육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2009년 쿠바혁명 50주년 공식 기념행사도 이곳에서 열렸다.



➦ 2008년 7월 26일 몬카타 병영습격 55주년 기념식장을 준비하는 모습. 중앙 휘장에는 호세 마르티와 청년시절의 카스트로, 만년의 카스트로가 보이고, 아래에는 “사상의 승리”(Victoria de las ideas)라는 슬로건이 적혀있다. 건물 오른쪽에 ‘7월 26일 운동’ 깃발이 내걸렸다.

➦ 쿠바에서 붉은색과 검정색 바탕에 ‘26 Julio’라고 쓰인 깃발이 휘날리는 곳은 쿠

바혁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의미이다. 사진처럼 묘소에 ‘7월 26일 운동’ 깃발이 있다면, 무덤의 주인공이 쿠바혁명에 참여한 인물이라는 뜻이다.

4. 멕시코, 그란마, 시에라 마에스트라



↑ 1956년 멕시코에서 무장투쟁을 준비하던 그란마(Granma) 호 대원들. 뒷줄 중앙의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멕시코 프로레슬러와 결혼한 마리아 안토니오 곤살레스(María Antonia González)이고, 그 옆의 선글라스를 낀 사람이 피델 카스트로이다. 체게바라는 맨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에 앉아 있다.



카스트로 형제, 체게바라 등 82명의 ‘7월 26일 운동’ 대원은 1956년 11월 25일 자정 멕시코의 톱스판

에서 12인승 요트 그란마(‘할머니’라는 뜻의 영어)에 승선, 12월 2일 쿠바 동쪽의 라스 콜로라다스 해변에 상륙한다. 그러나 대기하고 있던 정부군의 공격으로 불과 16명만이 살아남아 시에라 마에스트라 산에서 게릴라전을 펼쳤다.

➔ 카리브 해와 인접한 시에라 마에스트라. 야자수 등이 자라는 열대 우림지역이다. 시에라 마에스트라의 주봉은 쿠바에서 가장 높은 피코 투르키노로 해발 1974미터이다.



➔ 1957년 12월 피델 카스트로(사진 왼쪽)와 인터뷰하는 스페인 기자 엔리케 메네세스(사진 오른쪽). 중앙은 라울 카스트로. 허버트 매튜스에 이은 메네세스의 인터뷰와 사진으로 카스트로의 투쟁은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 작전회의 중인 반군. 게바라와 피델 카스트로가 보인다.



👉 셀리아 산체스(사진 오른쪽)와 빌마 에스핀(사진 왼쪽). 셀리아 산체스는 피델카스트로의 비서이자 동반자였으며, 빌마 에스핀은 라울 카스트로와 결혼했다. 쿠바의 국화 ‘꽃생강’(Flor de la Mariposa)은 셀리아의 트레이드마크인데, 사진에서는 빌마 에스핀이 꽃았다.





➡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
1957년 시에라 마에스트라

📷 게바라 지휘의 제4열
(Columna). 1958년 새해를 맞아
엘 움브리토에서 기념 촬영
한 사진



➡ 시에라 마에스트라에 있는
피델 카스트로의 지휘 본부

➡ 마리오 무뇨스 야전병원. 마
리오 무뇨스는 몬카다 병영 습
격 때 목숨을 잃은 혁명전사이
다. 체 게바라도 이곳에서 진료
를 했다고 한다.



5. 혁명의 성공과 민중의 환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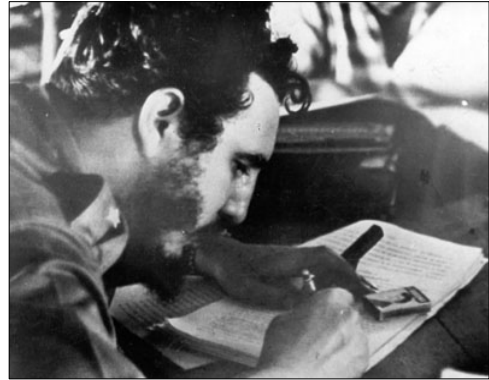


1959년 1월 1일 바티스타의 출국 소식을 들은 카스트로는 쿠바 동부에서 ‘반군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 정권이 들어서야 한다고 방송하고, 시엔푸에고스와 체 게바라에게 속히 수도로 진군하여 군사기지를 점령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카스트로는 1월 3일 산티아고에서 법조인이자 정치인인 마누엘 우르티아를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정부를 구성하는 등 사전 정비작업을 마친 후, 1959년 1월 8일 자발적이고 대대적인 쿠바인들의 환영을 받으며 아바나에 입성했다. 사진은 1월 8일 아바나로 진입하는 혁명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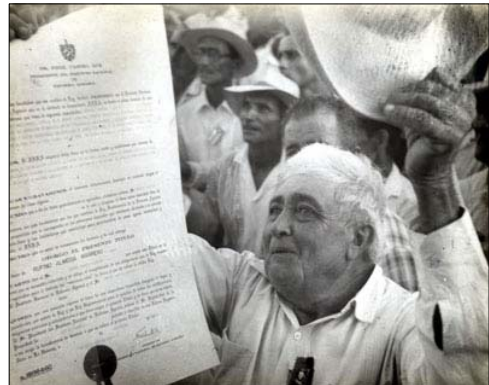


6. 사회주의 개혁

1959년 5월 17일 시에라 마에스트라의 라 플라타에서 농지개혁법에 서명하는 피델 카스트로와 기뻐하는 농민들(왼쪽 아래). 피델은 진정한 혁명은 “서민에 의한, 서민을 위한, 서민의 혁명”이라고 말했다. 10만 가구의 농민이 혜택을 받았다.



텍사코 정유회사 국유화 광경. 쿠바는 1960년 소련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도입한 원유를 미국계 정유회사 텍사코, 셸, 에소가 정제 거부하자 7월 1일 국유화하고, 9월 13일에는 미국계 은행과 제당공장을 국유화했다.



7. 대미관계



➤ 1960년 4월 19일 미국의 부통령 닉슨과 면담하는 피델 카스트로. 악수하는 두 사람의 싸늘한 표정은 양국관계의 험로를 암시하는 듯하다.



📌 링컨 기념관에 들른 카밀로 시엔푸에고스(왼쪽). ‘반군’은 전투 막바지에 이르러 세면할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에 모두 더부룩한 턱수염에 장발이었다. 60년대 미국 젊은이들의 장발에 영향을 주었다는 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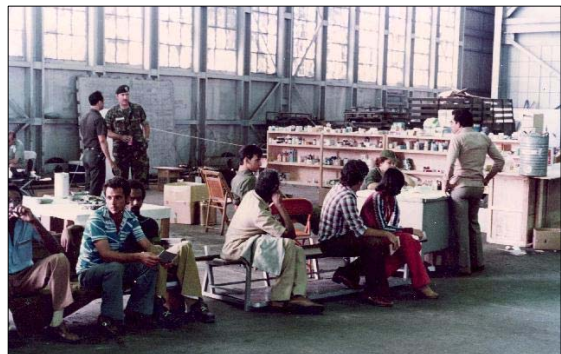


📌 히론 전투(일명, 피그스만 전투)에서 포로로 잡힌 2056여단 병사들. 1961년 4월 17일 미국은 쿠바망명자와 용병 1,200명으로 쿠바의 히론 해안에 상륙했으나 72시간 만에 격퇴됐다. 군사력으로 쿠바 혁명정부를 전복하려는 미국의 지속적인 도발은 1962년 ‘10월 위기’(일명, ‘미사일 위기’)로 절정에 달했다.



➦✉ 1980년 4월 15일에서 10월 31일까지 마리엘 항구 개방. 약 12만 5천 명이 플로리다에 도착했다. 대부분 가난한 유색인종이었기 때문에, ‘쿠바의 인권에 관심이 많은’ 미국의 쿠바 교민들에게 따돌림 당했다. 사진은 키웨스트에 도착한 쿠바인과 수용소의 모습

➦✉ 미국 키웨스트에 도착한 쿠바인들. 1965년 10월 10일부터 카스트로는 카마리오카 항구를 개방하고, 원하는 사람은 “양키 천국”으로 가도 좋다고 천명했다. 1965년 11월 15일까지 개방한 카마리오카 항구를 통해서 2,979명이 미국으로 떠났다. 대부분이 백인인 이들은 앞서 망명한 쿠바인들과 함께 플로리다에서 반카스트로 압력단체를 형성하여 미국의 대쿠바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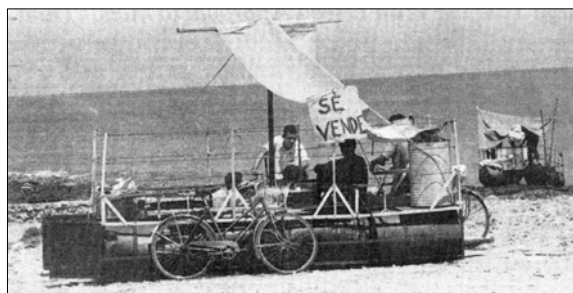




↑ 1994년 동구권 붕괴와 미국의 경제봉쇄로 ‘뗏목 사태’ 발생



↑ 2000년 ‘엘리안 사태’ 발생. 이 사건을 지켜본 《뉴욕타임즈》 기자는 이렇게 평했다. “엘리안과 후안 미겔 곤살레스는 아들과 아버지 사이다. 엘리안은 순진한 어린아이고, 후안은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다. 엘리안은 전형적인 6살 아이처럼 행동했고, 후안은 전형적인 아버지처럼 행동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만 전형적인 바보처럼 행동했을 뿐이다.” 그러나 엘리안을 쿠바에 송환한 민주당은 이후 대선에서 쓴맛을 보았다. 공화당의 조시 부시와 팽팽한 접전을 벌이던 엘 고어 민주당 후보는 플로리다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대권을 넘겨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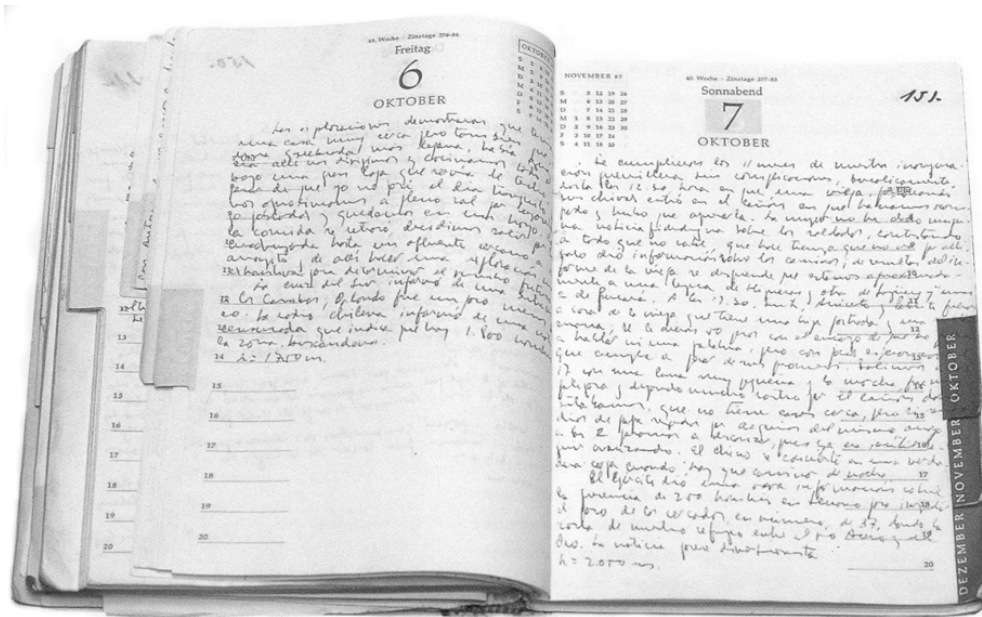


↑ 위 사진은 1994년 뗏목을 타려고 뛰어드는 쿠바 난민. 아래 사진은 쿠바 코히마르 해변에서 뗏목을 파는 쿠바인들

8. 체

A B D F
G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 스페인 카탈루냐 시인 호안 브로사(Joan Brossa)의 시



↑ 10월 7일에서 끝난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의 볼리비아 일기. 1965년 피델에게 6장 분량의 작별 편지를 남겨두고 쿠바를 떠난 게바라는 1967년 10월 8일 볼리비아 이게라(La Higuera)에서 피살되었다. 유해는 우여곡절 끝에 1997년 7월 12일 쿠바로 송환되어 산타 클라라에 안장되었다. 게바라의 딸, 알레이다는 추도사에서 “오늘 당신의 유해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패배한 사람의 유골은 아닙니다. 영원한 젊은 영웅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라고 말했다.

9. 트리컨티넨탈 회의와 국제연대



➤ 1966년 1월에 개막한 트리컨티넨탈 회의 포스터. 이 회의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민중연대기구(OSPAAAL: Organización de Solidaridad con los Pueblos de Asia, Africa y América Latina)가 창립되었고, 잡지 《트리컨네티넨탈》가 발간되었다.



➤ 앙골라에서 작전중인 쿠바군과 1998년 9월 2일 더번에서 개최된 12차 비동맹회의에서 카스트로를 반기는 만델라. 1975년 쿠바는 앙골라에 군대를 파견, 미국이 지원하는 남아공화국군의 공격을 저지했다. 만델라는 쿠바가 아프리카의 독립, 자유, 정의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했다.

10. 동구권 해체와 비상시국



80년대말 동구권과 소련연방의 해체, 미국의 경제봉쇄로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한 쿠바는 1990년 8월 “평화기의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을 제한했다.

📅 일요일 아침 아바나의 베다도 거리에 열리는 농민 시장. 자가 생산 농산물을 판매한다.

+ 아바나의 도심 유기농업 오르가노포니코 (Organopónico).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의 자투리 공간을 이용하여 시작된 농업으로 현재는 미래의 농업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11. 쿠바의 변화



↑ 1998년 1월 21일 쿠바를 방문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월 25일 미사집전을 위해 아바나 혁명광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 2008년 2월 24일 쿠바 의회에 출석한 라울 카스트로. 이 자리에서 라울 카스트로는 신임 국가평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